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이민수^a · 박덕병^b

^a전북발전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

^b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문요약

귀농·귀촌자의 동기, 태도, 행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자를 귀농·귀촌동기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귀농·귀촌자는 5개의 귀농·귀촌동기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5개의 귀농·귀촌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이다. 이 중에서 전체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귀농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와 '전원적 삶 추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귀농자들은 '전원적 삶 추구'를 가장 중요한 귀농동기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귀농·귀촌동기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동기 차원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군집은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이다.

주요어: 귀농, 귀촌, 유형화, 군집분석, 요인분석

1. 서론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방자치 단체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경제위기의 심화로 인한 귀농·귀촌 수요자의 증가를 예상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발적인 귀농 지원정책을 종합한 '귀농·귀촌 종합 대책'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선정과 지원체계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귀농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 귀농·귀촌 관련 대책이 단순한 국가적인 수준의 고용 악화 상황을 완충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하다.

송미령, 박석두, 성주인 & 박경철(2006)의 조사에 의하면, 도시민의 56.1%가 농촌 이주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10년 내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민은 10.9%(150~170만 명), 구체적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은 2.5%(30~40만 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하고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는 도시민 농촌 유치 종합지원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 같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06~2010년 44만 명 유입, 2011년부터 연 36.5만 명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2015년에 22.7%까지 증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과 달리 도시민의 농촌유입은 거의 미미한 반면에 4~50대의 중장년층이 현재 농촌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진안의 귀촌마을 사례 등을 보면 외국과는 달리 은퇴계층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계층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귀농·귀촌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농촌이주에 행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의 귀농·귀촌에 연구는 주로 귀농자들의 영농정착에 주요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농업과 농촌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농촌에서 농업은 더 이상 주요 생산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귀농·귀촌 정책은 영농에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자의 귀농동기와 정책요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귀농·귀촌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들 유형에 따른 귀농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귀농·귀촌 유형자별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gesa, 2001; Urbanska & Levering, 1996).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귀농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강대구 2006a, 2006b, 2007; 구본석, 1999; 김성수 et al., 2004; 김형용, 1998; 남정덕, 2000;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이동하 1998; 정대영, 2001; 정한모, 2002). 최근에는 일부 연구자(김정섭, 2009, 송정기, 2011)를 중심으로 지역 인적자원의 재조직화와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귀농·귀촌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자의 농촌이주 행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대부분 연구들은 귀농자의 농촌이주 행태를 사전적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서규선·변재면(2000), 강대구(2006a), 박공

주(2006)의 연구를 보면, 연고지를 기준으로 귀농을 U턴, J턴, I턴 형태로 구분하였다. 최근에 유학열(2011)은 기존의 영농위주 귀농자 구분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자를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향형’, ‘도시출퇴근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귀농·귀촌자를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충남지역 소규모 귀농자를 70여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접조사를 통하여 귀농자의 행태를 사전적정의 차원에서 유형화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귀농자 유형화 연구와 이들의 분석대상,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귀농·귀촌 유형화 국내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유형분류			연구대상	분석방법	
서규선 · 변재면 (2000)	연고 지역	U턴	계획적U턴	계획적인 귀농	영농교육프로그램 참석 귀농자 310명	빈도분석
			비계획적U턴	변수발생으로 인한 비계획적 귀농		
	무연고 지역	J턴		무연고지역으로 귀농		
		I턴		무경험에서 귀농		
강대구 (2006)	농촌-도시-고향농촌귀향 농촌-도시-타지역농촌귀향 도시-농촌정착			전국 귀농자 375명	빈도분석, χ^2 검정, ANOVA	
박공주 (2006)	U턴형(농촌-도시-고향농촌) J턴형(농촌-도시-타지역농촌) I턴형(도시-농촌)			전국 귀농자 408명	t-검증, ANOVA	
유학열 (2011)	전업귀농형		영농목적		충남지역 귀농자 70명	빈도분석
	은퇴귀농형		은퇴 후 겸업 형태 영농			
	농촌지향형		농촌동경 및 도시생활 회의			
	노후휴향형		휴양, 건강을 위한 소규모영농			
	도시출퇴근형		농촌 거주			

3. 연구방법

3.1. 귀농·귀촌동기 측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면접결과를 토대로 설문항목을 개발하였다.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군집화하기 위해서 22개의 귀농·귀촌동기 측정 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측정항목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귀농·귀촌 관련 연구자 5인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face validity) 검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이 귀농·귀촌동기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2인 이상에게 지적된 문항은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3개 문항은 삭제되었으며, 5개 문항은 응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는 1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3.2. 군집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세 단계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동기의 기저에 존재하는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의 중요한 목적이 다수의 변인을 상관관계가 없는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인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적용하였다. 배리맥스 회전법은 요인들의 직교회전 방식의 하나로 요인들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5).

요인분석 시 변수와 요인수의 선택에는 Hair et al.(2005)에 의해 제시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i)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 이어야 한다. ii)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s)는 1 이상 이어야 한다. iii) 요인분석 결과는 원 변량의 60% 이상을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슷한 귀농동기를 가진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시 자료가 가지는 구조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점수 보다는 원변인 점수가 이용되어야 한다(Hair et al., 2005, p.582). 원변인을 이용할 경우 각 차원에 속하는 원변인들의 평균을 사용하거나 평균을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한다. 모든 변인이 같은 척도(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위해 변인들을 표준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군집분석 과정은 변인들의 분포차이에 영향을 받는다(Hair et al., 2005, p.602). 또 변인들의 평균차이는 군집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평균이 다를 경우 군집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이 분포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고 평균차이로 인한 해석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규명된 각 차원의 원변인의 평균 점수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여 군집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후 생성된 변인들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Hair et al.(2005)이 제시한 2단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수와 초기값을 결정하고, 이 값을 토대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을 결정하였다. 군집수와 초기값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이상치(outlier)가 제거되었다. 군집분석의 경우 이상치(outlier)가 존재할 경우, 군집의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화 과정에서 5개 이하의 군집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타 군집과 묶여지지 않는 5개 이하의 관측치를 가지는 군집은 제거되었다. 이상치를 제거한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이용하여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는 군집화 과

정의 각 단계에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기 위해 그룹화 된 관측치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동질적인 관측치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짐을 나타내며,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Hair et al., 2005).

계층적 군집분석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법의 하나인 K-means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 분석 시 초기값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획득한 군집평균값을 활용하였다. K-means는 이상치, 개체(case)간의 거리측정 방법, 부적절한 변인의 포함 등에 덜 민감한 특성을 가진다(Hair et al., 2005). 군집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군집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만족도, 귀농·귀촌 생활의 어려움, 귀농·귀촌 정책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래 <표 2>에 나타나 있다.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성이 84.8%, 여성이 15.2% 이었다. 연령은 40대가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이하 30.4%, 50대 이상 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년제 대학졸업이 37.2%, 전문대학졸업이 14.1%, 대학원이상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전 직업의 경우는 전문·사무직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31.2%, 현장기술직·서비스직이 19.5%, 기타가 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족구성을 보면 자녀를 가진 부부 혹은 부모와 사는 전형적인 2세대 가구의 비율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세대 가구가 29.9%, 1세대 가구가 27.3%, 1인가구가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를 살펴보면 중학교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이하만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는 31.1%로 동일하였다. 귀농 전 거주지는 수도권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소도시가 32.5%, 광역시가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4	84.8
	여성	24	15.2
연령	30대 이하	48	30.4
	40대	64	40.5
	50대 이상	46	29.1
학력	고졸이하	62	39.7
	전문대졸	22	14.1
	4년제졸	58	37.2
	대학원이상	14	9.0
귀농 전 직업	전문·사무직	52	33.8
	자영업	48	31.2
	현장기술직/서비스직	30	19.5
	주부/학생/기타	24	15.6
자녀	자녀없음	46	31.1
	초등이하만	46	31.1
	중등이상	56	37.8

거주가족	1인가구	12	7.8
	1세대가구	42	27.3
	2세대가구	54	35.1
	3세대가구	46	29.9
귀농전 거주지	수도권	86	55.8
	광역시	18	11.7
	중소도시/시군	50	32.5

응답자의 귀농·귀촌 특성은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귀농·귀촌 유형은 도시에서 태어나 귀농한 I턴형이 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향으로 귀농한 U턴형이 23.1%, 타향으로 귀농한 J턴형이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기간은 1년 미만이 6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2년 미만이 20.3%, 2년 이상이 15.2%를 차지하였다.

귀농·귀촌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3,000~4,500만원 미만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0만원 미만과 4,500~7,500만원 미만이 23.1%, 7,500만원 이상이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표한 기대소득에 비해 올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문의한 결과(기대소득 달성률), 목표에 비해 25% 이하의 소득만 달성가능하다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4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 이상 달성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28.4%로 나타났다. 기대소득 중 농외소득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농외소득 목표비율), 농외소득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외소득 비율이 25%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7.3%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농규모는 1,000평 미만인 경우가 50.0%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00~3,000평 미만인 26.4%, 3,000평 이상이 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 영농규모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54.9%)이 1,000평 미만의 농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0평 이상이 26.8%, 1,000~3,000평 미만이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귀농특성

구 분	빈도	비율	
귀농패턴	U턴	36	23.1
	J턴	22	14.1
	I턴	98	62.8
귀농기간	1년 미만	102	64.6
	~2년 미만	32	20.3
	2년 이상	24	15.2
귀농기대소득	3,000만원 미만	36	23.1
	~4,500만원 미만	54	34.6
	~7,500만원 미만	36	23.1
	7,500만원 이상	30	19.2
소득목표도달률	25% 미만	72	48.6
	~50% 미만	34	23.0
	50% 이상	42	28.4
농외소득목표비율	25% 미만	56	37.3
	~50% 미만	36	24.0
	50% 이상	58	38.7
영농규모(자가)	1,000평 미만	72	50.0
	~3,000평 미만	38	26.4
	3,000평 이상	34	23.6
영농규모(임대)	1,000평 미만	78	54.9
	~3,000평 미만	26	18.3
	3,000평 이상	38	26.8

4.2. 귀농·귀촌동기변인 요인분석

귀농·귀촌자의 귀농 동기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18개의 귀농·귀촌 동기 변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 논의한 Hair et al.(2005)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18개의 원변인 중 3개의 변인(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의 공동체적 삶이 좋아서)은 최종 요인분석 모델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15개의 원변인으로 5개의 요인이 생성되었으며, 결과는 <표 4>과 같다.

우선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Bartlett의 구형성 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사(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zero matrix)인지에 대한 검정이다. 분석결과 상관계수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가설은 1% 수준에서 기각되었다.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검사(measure of sampling adequacy)도 주어진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수의 값이 0.7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0.706로 나타나 원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함을 보여준다.

5개 요인은 총 분산의 72.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부하량은 0.4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총 분산의 60%를 설명하면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진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p.120). 5개 요인의 Cronbach 알파값은 모두 0.6 이상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가 농촌이 많아서', '농업전망이 밝아',

‘도시보다 더 많은 소득 올리기 위해’, ‘새로운 사업성공기회가 도시보다 많아서’ 등의 4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변량의 21.3%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농촌지역의 상대적 경제적 성공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요인 1은 ‘경제적 성공’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농촌의 고요한 분위기가 좋아’, ‘농촌의 자연과 가까이 하기위해’, ‘농촌의 소박한 삶이 좋아’,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등 4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4.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농촌의 전원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2는 ‘전원적 삶’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은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등 3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2.5%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3은 자녀 및 가족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3은 ‘가족/자녀’로 명명되었다.

요인 4는 ‘도시의 생활비 부담이 커서’, ‘도시의 취업기회 적어’ 등 2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2.2%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4는 도시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4는 ‘도시생활도피’로 명명되었다. 요인 5는 ‘부모님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영농승계를 위해’ 등 2개의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변량의 12.1%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5는 영농승계와 관련된 변인들이다. 따라서 요인 5는 ‘영농승계’로 명명되었다.

〈표 4〉 귀농동기변인 요인분석 결과

귀농동기변인*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α	평균**
요인 1: 경제적 성공		3.19	21.27	0.90	2.74
새로운 경제활동기회가 농촌이 많아서	0.879				2.80
농업전망이 밝아	0.871				2.91
도시보다 더 많은 소득 올리기 위해	0.835				2.55
새로운 사업성공기회가 도시보다 많아서	0.793				2.71
요인 2: 전원적 삶		2.18	14.52	0.70	3.93
농촌의 고요한 분위기가 좋아	0.848				3.82
농촌의 자연과 가까이 하기위해	0.749				4.20
농촌의 소박한 삶이 좋아	0.654				3.52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0.597				4.21
요인 3: 가족/자녀		1.88	12.52	0.65	3.02
자녀교육을 위해	0.778				2.25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0.719				3.22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0.680				2.29
요인 4: 도시생활도피		1.84	12.24	0.79	2.47
도시의 생활비 부담커서	0.886				2.10
도시의 취업기회 적어	0.774				2.17
요인 5: 영농승계		1.81	12.05	0.77	2.21
부모님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0.884				2.13
영농승계를 위해	0.716				

설명분산의 누적값 = 72.593%, KMO = 0.70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chi^2 = 1180.461$ (d.f=105, Sig=.000)

* 귀농동기변인 중 Hair et al.(2005)의 기준에 의해 3개의 변인은 최종 요인분석에 포함되지 않음(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 농촌의 공동체적 삶이 좋아서).

** 1=전혀그렇지않다~5=매우그렇다.

4.3. 군집분석

귀농동기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세분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의 군집화 과정에서 5개 이하의 군집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타 군집과 묶여지지 않는 5개 이하의 관측치를 가지는 군집은 이상치(outlier)로 간주되어 추후의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9개의 관측치가 제거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단계별 계수 값을 분석한 결과, 군집화 계수 값은 2 → 4 → 6단계의 순서로 값이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군집수를 2개, 4개, 6개로 하여 군집분석 결과를 검토한 결과 4개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도출한 군집평균값을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군집수를 4개로 설정한 후 K-means를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means에 의한 군집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군집들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통해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군집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개의 귀농동기 요인 각각이 군집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통해 검정한 결과, 1% 수준에서 5개의 모든 요인이 군집들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uncan의 사후검정결과에서도 각 군집들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4개의 군집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 군집분석 결과

요 인	군집분류				전체 평균	F-value	사후검정 (Post Hoc)
	기업 가형 (I) (n=60)	소규모 창업형 (II) (n=30)	전원형 (III) (n=62)	영농 승계형 (IV) (n=14)			
경제적 성공	0.71	0.12	-0.75	-0.25	-0.02	42.882***	III<IV<II<I
전원적 삶	-0.01	-1.15	0.61	-0.74	-0.05	43.108***	II<IV<I<III
가족/자녀	0.39	-0.68	0.04	-1.17	-0.07	23.584***	IV<II<III, I
도시생활도피	0.58	-0.32	-0.47	-0.55	-0.07	24.106***	IV, III<I
영농승계	0.63	-0.69	-0.66	1.08	-0.05	70.124***	II, III<I<IV

Pillai's trace = 1.590(p<0.01) Wilk' Lambda = 0.088(p<0.01)
 Hotelling's trace = 4.196(p<0.01)
 Roy's largest root = 2.624(p<0.01)

* p < 0.1 ** p < 0.05 *** p < 0.01

군집 I은 응답자의 36.1%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공' 동기가 가장 높고, '영농승계'와 '도시생활도피'에 대한 동기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I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찾는 유형이므로 '기업가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II는 응답자의 18.1%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공'에 대한 동기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동기는 모두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의 귀농동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경제적 이유로 귀농한 군집으로 '소규모창업형'으로 명명되었다.

응답자의 37.3%는 군집 II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III은 '전원적 삶'에 대한 동기가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동기는 비슷하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집 III은 주로 전원적 삶을 위해 농촌에 귀농한다는 측면에서 '전원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IV는 응답자의 8.4%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영농승계'의 귀농동기

점수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군집 IV는 ‘영농승계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의 구별에 영향을 미치는 추구편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첫 번째 판별함수에서 군집을 구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귀농동기 요인은 ‘경제적 성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성공’ 동기 요인이 군집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전원적 삶’, 세 번째 판별함수에서는 ‘영농승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군집의 판별분석 결과

요 인	표준 정준 판별함수 계수		
	판별함수1	판별함수2	판별함수3
기업가적 동기	0.73	-0.14	0.45
전원적 삶	-0.54	0.75	-0.23
가족/자녀	-0.03	0.40	0.58
도시생활도피	0.38	0.27	0.35
영농승계	0.56	0.35	-0.76

판별함수	Eigenvalue	정준상관계수	Wilks' Lambda	χ^2
1	2.62	0.85	0.09	390.76***
2	0.99	0.71	0.32	184.09***
3	0.58	0.61	0.63	73.78***

이와 함께 군집이 적절히 분류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별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류정확도(classification accuracy)를 도출하였다(표 7). 판별분석 도출에 사용된 표본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형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적용할 경우보다 분류정확도가 높아지는 과도적합

(overfitting)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ir et al.(2005)이 제시한 Leave-One-Out 교차검정(Leave-One-Out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Leave-One-Out 교차검정은 K-fold 교차검정방법의 하나로 전체 표본 중 1개의 자료만을 제외한 N-1개로 모형 구축 후 나머지 1개 표본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다. 분류정확도는 이와 같은 과정을 N회 시행한 후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Leave-One-Out 교차검정은 표본수가 적을 경우 가장 우수한 교차검정 결과를 도출하며,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e)을 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Kohavi, 1995; Stone, 1974; Vapnik, 1998). 판별분석 도출에 사용된 원자료의 분류정확도는 96.4%이었으며, 교차검정 자료의 분류정확도는 95.2%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차검정 분류정확도는 군집분석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판별분석을 활용한 군집의 분류정확도

		귀농동기 군집	Predicted Group Membership				전체
			기업가형	소규모 창업형	전원형	영농 승계형	
Original	Count	기업가형	60	0	0	0	60
		소규모창업형	0	28	2	0	30
		전원형	2	0	60	0	62
		영농승계형	2	0	0	12	14
	%	기업가형	100.0	0.0	0.0	0.0	100.0
		소규모창업형	0.0	93.3	6.7	0.0	100.0
		전원형	3.2	0.0	96.8	0.0	100.0
		영농승계형	14.3	0.0	0.0	85.7	100.0

Cross-validated	Count	기업가형	60	0	0	0	60
		소규모창업형	2	26	2	0	30
		전원형	2	0	60	0	62
		영농승계형	2	0	0	12	14
	%	기업가형	100.0	0.0	0.0	0.0	100.0
		소규모창업형	6.7	86.7	6.7	0.0	100.0
		전원형	3.2	0.0	96.8	0.0	100.0
		영농승계형	14.3	0.0	0.0	85.7	100.0

4.4. 귀농·귀촌자 유형별 특성

4개의 군집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분시장이 유사한 요구와 태도를 가져야 하며(McCarthy & Perreault, 1982), 개인적 특성에서도 각 유형은 구별되어야 한다(Weinstein, 1987). 즉 귀농·귀촌자의 동기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군집별로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귀농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4개 군집 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표 8>,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서 4개의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고졸이하와 4년제 대학졸업이 76%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귀농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형’과 ‘영농승계형’은 고졸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규모창업형’과 ‘전원형’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비율이 평균에 비해 2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전 직업은 전체적으로 전문·사무직과 자영업의 비율이 각각 33.3%와 3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귀농유형별

로 살펴보면 '기업가형'은 자영업의 비율이 평균(32.0%)에 비해 12% 정도 높았고, '영농승계형'은 2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창업형'은 전문·사무직이 비율이 평균(33.3%)에 비해 9% 정도, '현장기술직·서비스직'의 비율이 평균(18.7%)에 비해 15%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형'은 전문·사무직의 비율이 평균(33.3%)에 비해 1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기업가형'은 초등학교이하만 있는 경우가 전체평균(30.6%)에 비해 7% 정도 높았고, '소규모창업형'과 '전원형'은 중학교이상의 학생이 있는 경우가 전체평균(38.9%)에 비해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형'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전체평균(30.6%)에 비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가족의 경우 '기업가형'은 3세대가구인 경우가 전체평균(30.7%)에 비해 23% 정도 높았고, '소규모창업형'의 경우는 2세대가구의 비율이 전체평균에 비해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형'은 1세대가구와 2세대가구인 경우가 전체평균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형'은 3세대가구인 경우가 전체평균(30.7%)에 비해 26%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전 거주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56.0%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귀농유형별로 살펴보면 '소규모창업형'은 광역시에 거주한 경우가 전체평균(12.0%)에 비해 2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원형'은 수도권에 거주한 경우가 전체평균(56.0%)에 비해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형'은 중소도시에 거주한 경우가 전체평균(32.0%)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귀농귀촌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구 분		기업가형 (I) (n=60)	소규모 창업형 (II) (n=30)	전원형 (III) (n=62)	영농 승계형 (IV) (n=14)	전체
성 별 ($\chi^2=9.649^{**}$)	남성	96.3%	91.7%	77.4%	85.7%	87.0%
	여성	3.7%	8.3%	22.6%	14.3%	13.0%
학 력 ($\chi^2=33.018^{***}$)	고졸이하	57.7%	8.3%	32.3%	71.4%	40.8%
	전문대졸	19.2%	16.7%	12.9%	0.0%	14.5%
	4년제졸	23.1%	58.3%	41.9%	14.3%	35.5%
	대학원이상	0.0%	16.7%	12.9%	14.3%	9.2%
귀농 전 직업 ($\chi^2=21.195^{**}$)	전문/사무직	20.0%	41.7%	45.2%	14.3%	33.3%
	자영업	44.0%	16.7%	22.6%	57.1%	32.0%
	현장/판매직	20.0%	33.3%	12.9%	14.3%	18.7%
	주부/학생/기타	16.0%	8.3%	19.4%	14.3%	16.0%
자 녀 ($\chi^2=17.077^{***}$)	자녀없음	29.2%	36.4%	20.0%	71.4%	30.6%
	초등이하만	37.5%	18.2%	33.3%	14.3%	30.6%
	중등이상	33.3%	45.5%	46.7%	14.3%	38.9%
거주가족 ($\chi^2=44.010^{***}$)	1인가구	7.7%	18.2%	6.5%	0.0%	8.0%
	1세대가구	19.2%	9.1%	41.9%	28.6%	28.0%
	2세대가구	19.2%	54.5%	41.9%	14.3%	33.3%
	3세대가구	53.8%	18.2%	9.7%	57.1%	30.7%
귀농 전 거주지 ($\chi^2=22.629^{***}$)	수도권	53.8%	27.3%	71.0%	42.9%	56.0%
	광역시	11.5%	36.4%	3.2%	14.3%	12.0%
	중소도시/시군	34.6%	36.4%	25.8%	42.9%	32.0%

귀농패턴은 전체적으로 고향이 도시인 경우가 귀농한 I-턴형이 6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귀농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형’은 U-턴의 비율이 평균(23.7%)에 비해 11% 정도 높았고, ‘영농승계형’은 2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형’은 I-턴형 비율이 평균(63.2%)

에 비해 1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기대소득은 전체적으로 3,000~4,500만원 비율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귀농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형'은 기대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비율이 평균(19.7%)에 비해 11% 정도 높았고, '소규모창업형'은 기대소득이 3,000~4,500만원 이상인 비율이 평균(35.5%)에 비해 12% 정도 높았다. '전원형'은 기대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비율이 평균(22.4%)에 비해 23% 정도 높았고, '영농승계형'은 기대소득이 4,500~7,500만원 이상인 비율이 평균(22.4%)에 비해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 목표비율을 살펴보면, '기업가형'은 50% 이하인 비율이 평균(61.7%)에 비해 15% 정도 높았다. '전원형'은 농외소득 목표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평균(38.4%)에 비해 8% 정도 높았으며, '영농승계형'은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소득 대비 귀농·귀촌을 통한 목표도달률은 전체적으로 25% 미만인 경우가 48.6%로 전체의 절반정도로 나타났다. 귀농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가형'은 목표도달률이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평균(29.2%)에 비해 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창업형'과 '전원형'은 목표도달률이 25% 미만인 경우가 전체평균(48.6%)에 비해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승계형'은 목표도달률이 25~50% 미만인 경우가 전체평균(22.2%)에 비해 3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귀농·귀촌유형별 귀농특성

구 분		기업 가형 (I) (n=60)	소규모 창업형 (II) (n=30)	전원형 (III) (n=62)	영농 승계형 (IV) (n=14)	전체
귀농유형 ($\chi^2=24.532^{***}$)	U턴	34.6%	25.0%	6.5%	57.1%	23.7%
	J턴	7.7%	16.7%	19.4%	0.0%	13.2%
	I턴	57.7%	58.3%	74.2%	42.9%	63.2%
귀농기대소득 ($\chi^2=43.034^{***}$)	3,000만원 미만	7.7%	0.0%	45.2%	14.3%	22.4%
	~4,500만원 미만	42.3%	58.3%	25.8%	14.3%	35.5%
	~7,500만원 미만	19.2%	25.0%	19.4%	42.9%	22.4%
	7,500만원 이상	30.8%	16.7%	9.7%	28.6%	19.7%
소득목표도달률 ($\chi^2=23.831^{***}$)	25% 미만	33.3%	63.6%	63.3%	14.3%	48.6%
	~50% 미만	29.2%	9.1%	13.3%	57.1%	22.2%
	50% 이상	37.5%	27.3%	23.3%	28.6%	29.2%
농외소득목표비율 ($\chi^2=13.099^{**}$)	~50% 미만	76.0%	63.7%	53.4%	42.9%	61.7%
	50% 이상	24.0%	36.4%	46.7%	57.1%	38.4%
영농규모(자가) ($\chi^2=11.102^*$)	1,000평 미만	48.0%	50.0%	50.0%	57.1%	50.0%
	~3,000평 미만	20.0%	10.0%	35.7%	28.6%	25.7%
	3,000평 이상	32.0%	40.0%	14.3%	14.3%	24.3%
영농규모(임대) ($\chi^2=27.389^{***}$)	1,000평 미만	36.0%	60.0%	77.8%	28.6%	55.1%
	~3,000평 미만	20.0%	20.0%	11.1%	42.9%	18.8%
	3,000평 이상	44.0%	20.0%	11.1%	28.6%	26.1%

5. 결 론

5.1. 분석결과 요약

요인분석 결과 귀농·귀촌자는 5개의 귀농동기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 5개의 귀농·귀촌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이다. 이 중에서 전체 변량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귀농·귀촌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와 '전원적 삶 추구'로 전체변량의 21.3%와 14.5%를 각각 설명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적 성공 추구' 차원에서 귀농·귀촌자들의 점수 편차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평균점수를 보면 '전원적 삶 추구' 차원이 3.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생활 추구'가 3.02, '경제적 성공 추구'가 2.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귀농·귀촌자들은 '전원적 삶 추구'를 가장 중요한 귀농·귀촌동기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귀농·귀촌동기에 따라 귀농·귀촌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귀농·귀촌동기 차원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4개의 군집은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이다. 각 귀농·귀촌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귀농·귀촌유형에 따른 맞춤형 귀농·귀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친밀도, 지역협력저해인식도, 귀농생활어려움, 귀농정책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기업가형'은 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귀농·귀촌자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고졸이하의 학력과 귀농·귀촌 전 자영업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

다. 또 이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기대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귀농·귀촌을 통하여 기대한 소득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농외소득 추구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소규모창업형’은 주로 대부분의 귀농·귀촌동기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 농촌에 귀농한 경우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과 귀농·귀촌 전 전문사무직·서비스직에 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다. 또 이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기대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정도이며, 현재 귀농·귀촌을 통하여 기대한 소득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농규모가 중간정도이며, 농외소득 추구성향이 중간정도(전체귀농자의 평균정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중학교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주로 귀농·귀촌 전 광역시에 거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원형’은 주로 전원적 삶을 추구하는 귀농자로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과 귀농·귀촌 전 전문사무직에 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다. 또 이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기대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낮으며, 현재 귀농을 통하여 기대한 소득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외소득 추구성향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중학교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주로 귀농 전 수도권에 거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농승계형’은 주로 영농승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고졸이하의 학력과 귀농·귀촌 전 자영업에 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다. 또 이들은 귀농·귀촌을 통한 기

대소득이 도시근로자보다 높으며, 현재 귀농을 통하여 기대한 소득목표를 중간정도 달성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영농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농외소득 추구성향이 매우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현재 자녀가 없으며, 주로 귀농 전 중소도시에 거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가형(36.1%)</p> <p>※학력: 고졸 이하 ※귀농 전 직업: 자영업 ※귀농패턴: U턴 ※기대소득: 높음(7,500만원 이상) ※목표소득도달률: 높음(50% 이상) ※농외소득목표비율: 하 ※영농규모(자가): 상(3,000평 이상) ※영농규모(임대): 상(3,000평 이상) ※자녀: 초등학교 이하 ※귀농 전 거주지:-</p>	<p style="text-align: center;">소규모창업형(18.1%)</p> <p>※학력: 4년제 대학 이상 ※귀농 전 직업: 전문사무직, 서비스직 ※귀농패턴:- ※기대소득: 중(4,500만원 미만) ※목표소득도달률: 낮음(25% 이하) ※농외소득목표비율: 중 ※영농규모(자가): 상(3,000평 이상) ※영농규모(임대): 하(1,000평 미만) ※자녀: 중학교 이상 ※귀농 전 거주지: 광역시</p>
<p style="text-align: center;">전원형(37.3%)</p> <p>※학력: 4년제 대학 이상 ※귀농 전 직업: 전문·사무직 ※귀농패턴: I턴 ※기대소득: 낮음(3,000만원 이상) ※목표소득도달률: 낮음(25% 미만) ※농외소득목표비율: 상(50% 이상) ※영농규모(자가): 중(3,000평 미만) ※영농규모(임대): 하(1,000평 미만) ※자녀: 중학교 이상 ※귀농 전 거주지: 수도권</p>	<p style="text-align: center;">영농승계형(8.4%)</p> <p>※학력: 고졸 이하 ※귀농 전 직업: 자영업 ※귀농패턴: U턴 ※기대소득: 중상(4,500만원 이상) ※목표소득도달률: 중(50% 미만) ※농외소득목표비율: 상(50% 이상) ※영농규모(자가): 하(3,000평 이상) ※영농규모(임대): 중(3,000평 이상) ※자녀: 없음 ※귀농 전 거주지: 중소도시</p>

〈그림 1〉 귀농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약

5.2. 정책시사점

앞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귀농·귀촌유형이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형’은 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추구하는 귀농·귀촌자로, 주로 농업을 농하여 고소득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자영업에 주로 종사한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은 풍부한 사업 경험과 사업요령, 그리고 현장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고소득 농업경영체가 되고자하는 열의가 높다.

‘기업가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심층면접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귀촌인의 경우 도시에서의 사업실패나 자영업자의 경쟁심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농업을 성공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가형’의 전형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귀농인을 위한 융자지원 제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제도에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융자지원은 담보가 있어야 하며, 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정부가 보증하는 융자지원액(2억 한도) 중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실체가격 평가나, 정부보증 등을 통해 실질적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고창의 경우 50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경우는 귀농 초기에는 전업

농 자격이 되지 않아 용자나 토지임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 영농정착지원금을 직접 지불하기보다는 농어촌공사와의 협력 하에 모험적이고 기업가정신을 가진 이들 ‘기업가형’ 귀농·귀촌인에게 임대농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전라북도 농지의 경우 대부분 500만원 지원금이면 5,000평을 3년간 임대해줄 수 있다. 3년 후에는 귀농·귀촌인들은 전업농 자격이 되므로 전업농 용자제도 등을 통해 임대농지 등 토지확보가 가능하다. 이처럼 직접 지원보다 임대농지를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여 제공해 줄 경우 토지확보와 관련된 자금문제는 상당부분 해결가능하다.

셋째,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가형’의 경우 토지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다음으로 교육·복지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었다.

‘소규모창업형’ 유형은 귀농·귀촌동기가 경제적 동기 이외의 타 동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유형의 귀농·귀촌인은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을 떠났다가 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촌했음을 나타낸다. 이를 볼 때 이들은 적극적 의미로 귀농·귀촌했다기 보다는 실직 등의 이유로 소극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농촌에 귀촌한 경우로 판단된다. 이는 ‘소규모창업형’의 농촌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농촌생활에 대해 타 유형에 비해 훨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 내 주민과의 관계형성에 대해서 타 유형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귀농정책만족도에 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개별 정책에서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소규모창업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소규

모창업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다양한 연성적 정책 프로그램(상담,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인구유지 등 단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단기적인 수준을 벗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조직화'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2008년 4월의 '귀농·귀촌 종합대책' 발표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과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 상황의 유사점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의 취업자 수 감소와 이로 인한 농업취업자 수의 증가현상이 2008년 11월부터 나타나고 있다¹⁾.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으로서의 농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에 급증했던 귀농·귀촌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상황이 호전되자 도시로 복귀하였다. '소규모창업형'은 경제적 동기이외에는 귀농·귀촌동기가 낮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도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창업형은 대부분 고학력의 전문직·판매서비스직에 주로 종사한 계층으로 향후 지역발전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인적자원이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좀 더 섬세한 연성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창업형'을 위한 창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소규모창업형'은 도시가구 평균소득 정도를 추구하는 계층이다. 영농을 통하여 도시가구 평균 소득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따라서 고학력의 전문직·서비스판매직 종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창업형'의 경우에는 그들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진안 사례처럼 창업교육프로그램과 소규모 창업 자금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셋째, '소규모창업형'이 지역주민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마을잔

1)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던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감률이 2008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치, 정기모임 등) 개발이 필요하다. '소규모창업형'은 지역사회 관계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지역 내 주민과 협력관계 형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지역주민과 불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 인적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손실이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소규모창업형'에게도 상당한 손실이다. 귀농·귀촌을 촉진하려는 정책 기획은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농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내 NGO의 세심한 준비와 역량이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지자체와 지역 내 NGO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전원형'은 주로 전원적 삶을 추구하는 귀농·귀촌자로, 주로 농외소득을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3,000만원 이하)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주로 고학력자로 도시에서 태어나 수도권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한 계층이다. 이들 중 일부는 50대 이상의 은퇴 계층이지만, 40대 이하의 젊은 층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은퇴 계층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은 자금·창업지원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주로 교육·복지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귀농정책에 대해서는 이들은 '소규모창업형'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원형'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원형' 귀농·귀촌자를 지역 내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틈새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외부에 새로운 유통경로(직판, 인터넷 판매 등)를 통한 적소시장 개발은 지역활성화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전원형의 경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태어나 전문직에 종사한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외부의 네트워크는 적소시장 개발에 가장 유용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원형이 지

역 내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는 전원형은 외국과 달리 은퇴계층이 아닌 3~4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들이 귀농·귀촌을 통한 기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훨씬 낮다. 즉 이들은 소득보다는 새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계층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초기에 사회적 일자리 등 최소한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할 경우 지역 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이들은 농업 외 소득확보와 창업에 기대가 높다. 지역 내 초기 정착만 어느 정도 지원한다면, 이들은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이다.

‘영농승계형’은 주로 영농승계 동기를 가진 귀농·귀촌자로, 주로 도시 가구 평균소득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근처의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에 종사한 계층이다. 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영농을 영위하는 경우이므로, 타 유형에 비해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등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사회 관계친밀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 유형에 비해 농촌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영농승계형’의 경우 향후 건설한 가족농 유지에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영농후계자의 존재가 농촌사회 유지와 농업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영농승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대구. (2006a).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 강대구. (2006b).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 과천: 농림부.
-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 구분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 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정섭. (2009).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 남정덕. (2000). 귀농형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공주.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규선, 변재면. (2000). U 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 송미령, 박석두, 성주인 & 박경철.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설문조사 결과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정기, 홍성효, 이순미, 박지애. (2011). 진안군 인구통계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사)한국농촌사회학회
-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열린충남*, 54.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후 농촌이주의사 결정 요인. *한국노년학*, 25(3), 139-153.
-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대영. (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gesa, R. U. 2001. Migration and the Urban to Rural Earnings Difference: A Sample Selection Approac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9(4), 847-865.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5). *Multivariate Data Analysis* (6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 Urbanska, W. & Levering, F. 1996. *Moving to a Small to Rural America*.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ceived 15 November 2012; Revised 23 November 2012; Accepted 10 December 2012

The Typology of Urban-Rur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Min Soo Lee^a · Duk Byeong Park^b

^a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eonju-si, Jeollabuk-do, 560-860, Republic of Korea

^b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yeonggi 441-853,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ology of urban-rur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actors analysis showed that the motivation of migration were economic, idyllic, family, escape of urban life, and farm succession. The most important variable was economic motivation. Cluster analysis also showed that enterprise seeker, small new business seeker, idyllic seeker, and farm successor.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policy makers to understand urban-rural migration whil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typology, urban-rural migration, factor-cluster analysis



Min Soo Lee is a researcher of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eonju,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pollicy, and regional policy. Address: (560-860) 1696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e-mail) minsooo@jthink.kr, phone) 82-63-280-7143



Duk Byeong Park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Tourism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on rural tourism, tourism marketing, and tourism development.
Address: Department of Rural Tourism,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Kyeonggi 441-853, South Korea
e-mail) parkdb@korea.kr, phone) 82-31-290-0272